

‘반야바라밀 · 보현행원 · 구국구세’ 불광사상 주축

불광연구원 ‘전법보살 광덕 스님의 사상 · 업적’ 체계적 연구 돌입... 매월 연찬회 열어 심층 조명

송유억불로 출대 받던 한국불교가 근대화 서구화의 격랑 속에서 좌초하지 않고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는 새의 두 날개처럼 한국불교를 받쳐준 선지식들이 있어 가능했다. 수행(修行)과 정법(正法)을 위해 신명을 바친 선승들과 교화(教化)와 전법(傳法)을 위해 헌신한 큰 스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 고승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경향은 주로 수행승이나 화승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포교와 전법에 매진한 선지식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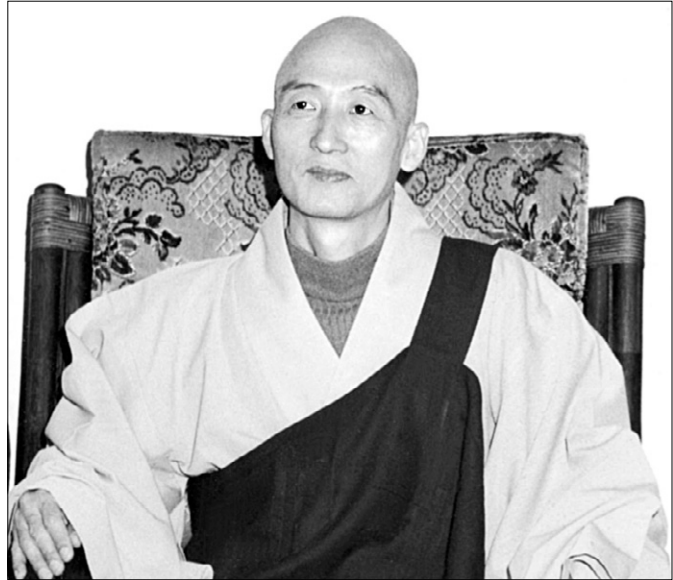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법보살(傳法菩薩인) 광덕 스님(1927~1999)의 사상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1년에 5차례에 걸쳐 10개의 연구주제를 발표할 계획을 밝히고, 7월 10일 첫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는 ‘광덕스님의 사상과 불광운동’의 주제로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했다.

김재영 박사(불교학 · 정보리회 법사)는 ‘광덕스님의 삶과 불광운동’을 주제로, 김선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광덕스님 사상의 개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광덕은 곧 불광, 불광은 곧 광명
김재영 박사는 “광덕 스님의 불광사상은 불가의 전통적인 수행에 의해 성숙되기 이전, 그의 치열한 생존의지에 의해 단련됐다”며 스님의 성장기를 고찰했다.

광덕 스님의 성장과정은 매우 곤궁하고 암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27년 경기도 오산에서 평범한 소농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광덕 스님은 생계문제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채 형의 도움으로 통신강좌를 이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태평양전쟁이 일어났고, 1942년인 16세 때 형과 아버지가 돌아갔으며, 1947



1974년 불광법회를 결성해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을 전파한 광덕 스님(1927~1999)은 현대의 ‘전법보살’이라 일컬어진다. 왼쪽 사진은 바라밀 운동회에서 참석 대중과 함께 찍은 사진.

년에는 어머니가, 1949년에는 어머니 노릇을 대신하던 둘째 누님과 매형이 이승을 떠났다.

가난한 살림, 고향 떠남, 진학좌절, 형과 부모님의 죽음, 누님의 죽음, 폐결핵 등. 성장과정에서 광덕 스님이 겪은 바위뎀어리 같은 절망과 어둠은 개인적인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김재영 박사는 “그가 살았던 1930~60년대, 즉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이승만 독재, 군사혁명과 유신 등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청년 광덕은 깊이 고뇌했고, 좌우분열과 극한적 대립상황에 매우 괴로워하며 친구들과 밤 세우 토론하곤 했다”며 “이러한 고뇌는 출가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덕 스님은 젊은 날의 고뇌를 안고 1950년 24세 때 범어사로 입산했다. 사미계를 받고 10여 년의 행자생활을 겪고 1960년 34세 때 득도를 했다. 스님은 용성 · 동산 · 소천 등 한국불교의 걸출한 선각

자들로부터 법맥을 이어 받았다.

김재영 박사는 “용성 스님의 대각구세운동, 동산 스님의 선종진흥운동, 소천 스님의 금강경구국운동이 불광사상의 토양이 되고 불광운동의 선구가 됐다. 실로 광덕 스님은 행운아”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박사는 “스님의 삶의 가난과 시대적 고뇌 속에서 단련된 무명함 감성과 문제의식이 불광사상 · 운동 전개에 결정적 조건으로 작용했다”며 “스님의 치열한 빛 찾기의 의식은 반야바라밀(교학 · 철학적 중심) · 보현행원(실천동력) · 구국구세(실제적 실천방향) 등 불광사상의 구조적 중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불광사상의 기본 담마를 주요로 한 활동은 △범회 범도활동-일요범회, 어린이범회, 중고생 범회 △선불가포교활동-보현행원 등 △문서포교활동-월간 불광 등 △교육연구활동-불광유치원, 불광대학 △다양한 기능별 봉사활동 △생태

환경운동 등을 전개하며 새로운 불교의 지평을 열어나갔다.

김재영 박사는 “이런 다양한 기능중심의 활동들이 불광운동이 추구하는 구체적 사회적 실천들”이라 평가했다.

이어 김 박사는 “광덕 스님이 열반한지 10년이 넘었다. 그만큼 광덕 스님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다. 불광운동의 이념과 열정도 상당부분 소강상태로 봐야한다. 이럴 때 일수록 불광운동의 이념을 살려내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김재영 박사는 광덕 스님 생전에 실시했던 포교사 교육제도를 새롭게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일반 불교대학, 교양대학 방식의 불교지식인 육성은 별로 의미가 없다. 불광포교사 · 상담사 · 자원봉사자 · 복지사 · 환경운동가 등 불광사상과 전문교과 과목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불광사상의 개혁작업이 성공

하려면 불광운동의 에너지원인 불광법회의 열정과 감동이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박사는 “법등은 불광 운동의 실체며 주제다. 법회의 에너지는 법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직되고 법등 본래의 이념인 전법운동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서대문 · 도봉구 · 부산 · LA 불광법당, 청년 · 연예인 · 기업인 불광법당 등 지역별 직능별 노루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것이 광덕 스님의 사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박사는 “본래 사찰은 민중들의 쉼터였고 재활센터였다. 사찰을 일컫는 vihara(精舍)가 바로 hospice(임종치유)를 의미한다. 갈 데 없고 굶주린 사람들이 절로 모여와 함께 살았다”며 “한국의 사찰도 불상 중심의 가람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쉼터와 교양장 중심으로 개혁한다면 평생의 쉼터와 전교교과 과목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야바라밀바탕으로 법등 운동

김선근 교수는 “광덕 스님의 사상은 크게 선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이 잘 어우러져 통일돼 불광사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광덕 스님은 은사인 동산 스님의 간화선 지도로 스스로 체득한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 원원적인 부처님의 세계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했다. 이런 체함을 통해서 나타난 스님의 사상은 <육조단경>에서 혜능 스님이 ‘항상 마하반야바라밀을 생각하라’고 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김선근 교수는 “이처럼 선가의 전통을 계승한 스님은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해 가슴 가슴마다에 진리가 울솟게 하는 불광사상을 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스님이 영향을 받은 반야사상에 대해 “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 사상은 소천 스님의 영향을 받아 <금강경>의 반야사상을 창조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스님의 여러 저서에 나타난 마하반야바라밀의 사조(思潮)들을 분석해보면 스님은 <금강경>의 제5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제 8의 법출생분(依法出生分) 등의 영향을 받아 스님의 방식으로 채색돼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광덕 스님의 화엄사상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영향을 받아 ‘보현행원’으로 창조됐다. 김선근 교수는 “스님께서 보현행원을 부처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불국토를 성취하는 법성신(法性身)의 윤리로 해석한 것은 탁견”이라며 “이러한 논리로 스님은 사회와 역사에 있어서 불자들이 담당할 의무를 보현행원으로 해석했다. 스님이 보현행원을 법성신의 윤리로 해석한 것은 화엄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불광법회는 지금도 스님의 사상을 계승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바라밀 국토 성취한다’를 바탕으로 생활에서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사상이 잘 어우러져 스님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을 법등운동으로 전개했다”며 “이는 한국 불교에 새로운 ‘신명모델’을 제시한 것이며 광덕 스님은 현대의 ‘전법보살’이다”고 평가했다.

이상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소신공양과 분신자살은 다른가?

참여불교재가연대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의미 되새겨

군위 지보사에서 3년간 무문관 수행을 하던 문수 스님은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했다. 스님의 소신공양은 현 정부를 물론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이후 환경운동을 펼치던 수경 스님은 “한 생각”에 몸을 던져 생명을 이루는 모습에서, 자신의 문제가 더욱 명료해졌다”며 승적을 반납하고 출연하고 행의 길을 떠났다.

소신공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생사운회를 끊지 못한 이들에게는 분노에 의한 자살로 이해됐다. ‘소신공양’이라는 표현도 낯설었다. 그 의미를 알리고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24시간 기도하는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소외되지는 않았는가? 하물며 같은 종단의 일부 수행자조차도 그 뜻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분위기에 불교계는 또 다른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과연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문수 스님 49재를 앞두고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문수 스님 소신공양을 주제로 7월 10일 만해 NGO교육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뜻을 대중들과 공감하고, 뜻을 이어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다.

#소신공양 ‘생명살림의 사회화’ 추진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이 한국불교의 사회적 자아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새로운 한국불교의 사회화도 연결 되어야 한다. ‘깨달음의 사회화’를 계승 발전시켜 ‘생명살림의 사회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사회적 의미’를 주제 발표한 박희택 불교이커뮤니티 원장은 생명살림의 사회화를 위한 불교지도자들과 불자대중들의 명확한 인식과 참여를 요구했다.

박희택 원장은 ‘새로운 사회화’의 방향으로는 “참 생명은 무생법인(無生法忍: 일체의 것이 본래 생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지혜)”이라는 불교적 생명관을 국민 대중과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명평화란 무엇인가? 박희택 원장은 “무생무상(無生無相)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4대강 사업은 권력의 욕망이 생(生)하였기에 전개된 것으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무생법인을 한참이나 벗어난 이명박 정권의 맹목적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 대한 불교계 일각의 소극적 대응자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공덕을 현양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권세에 눈멀지 않고, 순환진리를 체득해 긴 호흡으로 미래한국 불교와 나라를 향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이날 박희택 원장은 문수 스님의 삶 전반을 살펴보고, 그의 삶이 믿음 · 이해 · 수행 · 증득(信解行證)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택 원장은 “수행과 실천의 통일성을 통한 열반 성취”라고 평가하고 “문수 스님은 치열한 수행으로 지혜의 안목을 얻고, 소신공양의 열반을 통해 ‘약왕(藥王)’의 자비를 인연함으로써 진정한 완성자가 됐다. ‘지비일체(智悲一體)의 당체’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신자살과 소신공양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스님은 4대강 문제와 부정부패, 서민가난,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대의가 있었다. 또 경전에 따른 소신공양의 절차를 갖추고 있다. 경전에서는 이를 ‘참된 정진이고 참된 범공양’으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으뜸인 보시”라고 설명했다.

백찬홍 예코피스아시아 운영위원장은

논평에서 “종교를 떠나 사회적 의미로 보면 사회 또는 타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가져없이 버린 사례는 많이 있었다”며 그들의 죽음의 이유와 사회적 반향, 남은 자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문수 스님을 ‘신격화’하려는 것보다는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 종교인들의 자기 혁신과 불교도들의 자기 혁신, 내부 정화, 수행정진 회복 등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논평에서 “불교적 수행의 전통을 특화시키는 순간 종교적 배타주의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 죽음들, 불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까지도 불교적 가르침의 외연에서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수 스님의 분신공양을 경전적 정거에 따른 것으로 특화한다면 스님이 사회에 요구하는 의미가 희석된다”고 주장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은 방생법회

우희중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 ‘불교의 생명사상과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서 “소신공양은 폭력적 상황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불교적 저항의 모습이다. 무명으로 인해 질곡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을 위해 발휘하는 치열한 비폭력 저항 정신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우희중 교수는 소신공양을 불교의 생명존중과 비폭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방생’에 비유했다.

“상의상존에 의한 ‘나’는 너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너와 맺어온 관계 덩어리다. 연기적 모습에 근거한 생명이 존재 원인이 불에서 폭력은 ‘관계의 단절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다. 어떤 형태의 폭력적이든, 폭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관계에 깨어있는 비폭력이다.” 폭력은 ‘관계의 단절이나 왜



문수 스님 범국민 추모제를 앞두고 참여불교연대는 7월 10일 만해 NGO센터에서 문수 스님 소신공양의 사회적 의미와 불교적 생명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박희택 불교이커뮤니티 원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우희중 서울대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정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곡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상의 상존하는 연기적 관계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것이 폭력이며, 억압이다.

그는 “무명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단절된 관계 속의 나 자신을 포함해 못 생명으로 하여금 비폭력적 관계, 소통하며 열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방생”이라며 문수 스님이 못 생명과의 소통과 관계성을 위해 선택한 길은 분명한 소신공양이라고 정의했다. 모든 관계속에서 나 하나만을 생각하며,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 이렇다.

그럼에도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이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불교계가 전반의 입장으로 나누었고 일부 일반인들이 소신공양에 대해 부정적 반응,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에 대한 중단의 태도들은 소신공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생명존중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소신공양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생명에 대한 집착을 생명 존중이라고 착각하는 일부 일반인들에게는 도피성이거나 부정적인 자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종교인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

성이 높은 것으로 이타적 목적을 위한 자기 헌신이자, 회개이며 관계회복을 위한 매우 적극적인 자세다.”

방생이라는 것은 결국 한 개체의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내가 더불어 보나 바라보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우희중 교수는 중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중단의 처신을 볼 때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의지가 우려된다. 문수 스님의 영결식이 중단장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은해사 교구장으로 군위의 지보사에서 봉행했다는 것은 불교 스스로 소신공양을 개인 분신자살로 폄하한 행위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와 유지 계승은 중단차원에서 널리 그 뜻을 알리고 스님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승속을 떠나 불교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또 혼자서 조용히 소신공양을 올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중요인이지 수행자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세속의 분신과 동일선상에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적 시각에 기인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스님의 선택이 “수행자다운 면모”라고 덧붙였다.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논평에서 “출세간적 윤리의 의미를 세간에 이해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중단에서 오히려 세속윤리에 휘둘린다면, 이는 자신의 윤리적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출세간적 윤리의 토대가 중단 안에서 근원적으로 정초될 때,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을 바라보는 세속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기 참여불교연대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문수 스님 분향소가 설치됐던 조계사 현장에서 느낀 점을 위주로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언제나 많은 수의 국민들, 적지 않은 불자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소신공양을 충직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탄 해 한다. 스님들조차 소신공양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정서가 깔렸다”며 “이런 현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사생 아닌가’라는 의문에 답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